



## 보도자료

- 산업입지정책팀 팀장 김채규  
사무관 백승호
- ☎ 02-2110-8495, 8514
- dragon100@moct.go.kr
- 12월 28일 배포(총 5매)

• 12.28(木)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보완 추진

-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-

-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8일 환경부(금강유역환경청)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을 보내오에 따라,
  -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말까지 환경부 회신의견을 검토·추가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갈 예정이다.
- 그 동안 장항지구는 서해안시대의 거점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 89년 군산지구와 동시 지정되었으나,

#### ※ 장항지구 개요

- 위치 :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 해변 일원
- 면적 : 12,364천㎡ (374만평)
- 사업기간 : '90.1~'15.12 (사업시행자 : 토지공사)
- 사업비 : 10,566억원 (용지비 2,066억원, 조성비 8,500억원)

- 장항산단은 금년말 준공 예정인 군산지구와 달리 개발계획 변경,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.
-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과정의 객관성, 투명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,
-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와는 별도로 낙후된 서천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.

【별첨 1】 장항지구 추진경위

【별첨 2】 장항지구 도면

【별첨 3】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주요내용

## 【별첨 1】 장항지구 추진경위

- '87 ~ '89.12 : 군장산업기지종합개발계획 수립(전교부)
- '89. 8.10 :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(건설부고시 제467호)
  - 면적 : 937만평(군산 467만평, 장항 470만평)
- '90.1.22 : 군·장산업기지 기본계획 결정(건설부 고시 제21호)
- '90.5.12 사업시행자 지정(토공)
- '94.4.14 : 장항지구 어업보상 착수(1,741억원, 98.2% 완료)
- '96.4.20 : 장항 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기본계획변경결정
  - 장항지구 개발구역 변경 : 470만평→490만평
- '00.2.28 : 군장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
  - 장항지구 면적조정 : 490만평 →445만평
- '05.5.22 : 개발계획 변경 승인(승인고시)
  - 면적축소 : 445→374 만평
- '05.5.23 : 환경영향평가서 제출(374만평으로 축소된 사업계획 제시)
- '05.6.18 : 실시계획 승인 신청(1단계 : 호안도로)
- '05.8.12 : 환경영향평가 보완서(1차) 제출
- '06.1.24 :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(2차) 제출
- '06.6.20 :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(3차) 제출



## 【별첨 3】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주요내용

### 1. 총괄의견

- 장항갯벌 매립에 따라 조류 서식지 훼손, 수산자원 감소, 해양 오염 증가 등 해양환경에 직·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 우려
- 또한, 갯벌매립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 요구

### 2. 항목별 의견

#### 동·식물 보호

-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염생식물 및 곰솔군락이 생육하여 보호 필요

#### 해양환경

- 갯벌매립시 토사퇴적과 사업지구의 남측 침식현상 심화로 지형·지질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의 큰 변화 예상

#### 갯벌의 가치평가

- 기후조절기능, 자연재해 조절기능과 여가가치 산정시 토요 휴무제로 인한 가치상승 등 주요 기능과 평가요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상대적 저평가되었음

#### 경제적 생산효과

- 경제적 생산효과 산정시 산단 조성 및 가동을 위한 투자비용을 제외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대평가(연 2.6~5.4조원)